

원 지사 대권 도전... 정치권·여론서 '못매'

행감기간 서울서 “국민의힘 대표 선수” 의사 피력 정치권 “강한 유감”·공무원사회 “사퇴” 등 비판 속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서울로 출장을 떠나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피력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공무원사회에서 “도민 무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제주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16일 논평을 내고 “수감기간의 대표인 원희룡 지사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서울로 출장을 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울 대선 출마라는 얼토당토않은 얘기만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5일 원희룡 지사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출신 전 현직 선배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힘 대표 선수로 나가고 싶다”고 지지 호소하며 사실상 대권 도전 의사를 피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러한 행보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전형적인 무책임 행정이 다”면서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로

심각해진 제주경제와 지역의 여러 현안은 안중에도 없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는 대목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도민도 더 이상 원희룡 지사에게 제주로 돌아와 지역현안을 잘 살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도 사치임을 알고 있다”며 “원희룡 지사의 연이은 부적절한 처신에 다시 한 번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도 성명을 내고 “우선 도민들에게 인정받고 설득하는 것이 예의”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노조는 “중앙언론을 통해 원희룡 지사가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는 말을 전해 듣는다”며 “미리

예상은 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물론 공직내부에서조차 지역경제가 한없이 나락에 빠져들고 매듭을 풀어야 할 지역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본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중앙정치에 목을 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들로부터도 절대적인 지지를 얻지 못한 원희룡 지사의 대권 주자로서의 지지를 한계를 직시하고 진정성 있게 도민들에게 인정받고 설득하려는 겸허한 자세를 요구하며 그렇지 못하면 당당하게 도지사직을 사퇴해 중앙정치에 올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ty9456@ihalla.com



대권 도전 피력한 원 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마포천 데빌에서 열린 '제8차 더좋은 세상으로' (마포포럼) 정례 세미나에서 강연 전 김우성 전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주도교육청 ‘교사 인사’는 엉망진창”

교육위원회

부공남 “내부 개선 노력 절실” 김장영 “과목 정규교사 없다”



부공남 위원장 김장영 의원

제주도교육청의 안일한 ‘교사 인사’가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는 16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지난 14일에 이어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나섰다. 이날 김장영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은 “근무 연한이 4년인 기

간제교사가 한 학교에 쫓겨는 5년, 길게는 8년까지 근무하고 있다. 특히 어떤 학교는 한 과목에 정규교사 한 명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는 지난 2018년부터 인사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고 꼬집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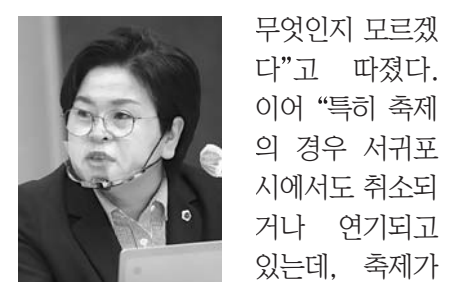
이러 김 의원은 “반대로 읍·면지역 한 학교는 같은 과목의 신규임용 교사 3명을 보내기도 했다”며 “신규교사가 담임을 맡다보니 학부모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사의 인사는 평균연령과 성별, 수업시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져야 한다”며 “아울러 중·고등학교의 1대1 교류 원칙과 함께 세부적인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공남 위원장 역시 “제주도교육청의 인사행정은 한 마디로 엉망진창”이라며 “내부에서 먼저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하

다”고 김 의원을 거듭했다. 이에 대해 문영봉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인사는 법 테두리 안에서 실시되고 있다”면서도 “학교 승진과 진보 등 여러가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부지 3곳을 용도변경해 교육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 1·2동)은 “현재 영어교육도시 학교 증원률이 70%대에서 더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영어교육도시 내 남아있는 학교 부지 3곳을 용도 변경, 교육 인프라 시설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칠십리축제 운영방식 질타·전면 개선 촉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서귀포시 감사서 질의 “예산확보·정체성 확립 필요”



오영희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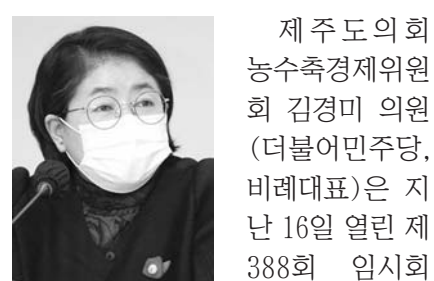
서귀포시 칠십리축제에 대한 진단과 함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장남)는 지난 16일 서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서귀포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오영희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귀포시 축제정책의 전면적인 개선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오 의원은 “서귀포시는 ‘시민중심 행복도시, 새희망 서귀포시’를 슬로건으로 삼고, 문화관광스포츠산업의 지역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했는데, 지금과 같은 코로나 위기상황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오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피해 분야가 문화관광인데, 관광업계와 지역소상공인·문화예술공연단체 등이 거의 초도화 수준이다. 코로나 초기에 각종 행사들이 취소되어왔는데 이제는 ‘위드 코로나’여서 다양한 방식의 온택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서귀포시 칠십리축제는 왜 아직까지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따졌다. 이어 “특히 축제의 경우 서귀포시에서도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는데, 축제가 취소되면 축제기획사·운영업체·공연예술인 등 축제 참여자는 물론 지역상인 및 특산물 판매, 축제관람객, 지역주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칠십리축제의 경우 의회 보고 당시 이번 달 중순이 예정이었는데, 아직 일정이 나오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냐”며 “온라인 탐라문화제와 같이 최근 축제들이 비대면 축제, 일상 속 축제 등 새로운 시도를 중심으로 변화된 환경에 맞는 다양한 대응전략들이 나오고 있는데 빠른 대응이 미흡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칠십리축제가 문화관광축제인지 시민화합축제인지 정체성이 모호하고, 협소한 축제장소와 부대시설 부족, 관광객보다는 도민의 비중이 높고, 젊은층의 관람 부족 등 한계가 많이 보인다. 1995년부터 개최된 명실상부한 서귀포의 대표축제인 키우기 위한 개선의지가 중요하다”며 “안정적 예산확보는 물론 축제 정체성 확립, 축제개최의 고질적 문제점 개선, 총괄감독제 활용 등 칠십리축제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영종기자

“공공부문 수의계약 사회적 기업 배제”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제주시 감사서 지적 일자리 사업 인건비 미지급도



김경미 의원

공공부문 수의계약에서 물품 의무구매 법정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기업이 오히려 배제되면서 존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시에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제주시에서 매년 2000건 이상을 수의계약하면서 공공물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에 대한 물품구매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유를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여성기업의 수의계약 비율은 2018년 6.7%에서 2019년 7.3%, 올해 9.8%로 소폭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회적기업과의 수의계약 비율은 2018년 0.1%(1건), 2019년 0건, 올해 0.2%(4건)이고, 같은기간 장애인기업과의 수의계약은 0.3%(7건), 0.3%(9건), 0.4%(7건)로 1%에도 못미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행정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인건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도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행정에서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내역을 살펴보니 9월부터 현재까지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당공무원의 인사이동 때마다 인건비 지급이 미뤄져 취업자들이 인사기간만 되면 불안해질 정도라는데, 담당 공무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국악지망생모집

본회는 창립 목적에 따라 국악인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국악교육에 필요한 모든 혜택을 베풀어 풍요로운 고향의 아름다움과 함께 공연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국악인 양성에 이바지하고 특히 “유대봉류 가야금 산조의 계승”을 위한 인재발굴 및 육성에 전념할 것입니다

모집요강

- 대상** 제주도전역
- 자격** 19세~36세 여성(기혼자 포함) · 가야금 수강 및 연주경험자 · 진학 지망생(국악 중·고등학교) · 초등학교 4학년 이상
- 강습과목** 가야금(타령, 민요, 산조) · 장단(민요, 기악) · 민요
※최초 2개월의 학습은 적성평가 기간입니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학습과정이 진전됩니다.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 란에 연락처 기재) · 보낼곳: 제주시 한림읍 귀덕6길 114 · 마감: 2020. 10. 30(금)
- 설명회** 일시: 2020년 10월 31일(토) 오전 11시 · 장소: 제주시 한림읍 귀덕 6길 114(자택)
- 문의** 064-796-3949(오후 5시 이후 통화가능) · 010-5755-1666

유대봉류 가야금산조 보존회 대표홍인성

제4회 친구해요! 작은도서관 독후감대회

응모기간 2020. 09. 14.(월) ~ 11. 06.(금)
응모분야 초등부, 청소년부, 성인부
응모도서 (사)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협회 선정도서 중 선택

응모요령

- 초등부: 200자 원고지 5매 내외(A4용지 1~2매)
- 청소년부: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A4용지 2~3매)
- 성인부: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A4용지 3~4매)
- *A4용지: 글자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글자모양 휴먼명조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선정도서 독후감(1인 1편)
- *신청서 양식: 홈페이지 jeju-smalllibrary.or.kr 공지사항 게시

접수처

- 우편접수: (우63103) 제주시 노형로 351, 1층
- 온라인접수: jeju-m_@hanmail.net
- 문의: (사)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협회(064-713-2727)

시상내역

-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성인부 1명, 청소년부 1명, 초등부 1명)
- 최우수상: 제주도의회의장상(성인부 1명, 청소년부 1명, 초등부 1명)
- 우수상: 제주시장상(성인부 1명, 청소년부 1명, 초등부 1명)
- 장려상: (사)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상(성인부 2명, 청소년부 2명, 초등부 2명)

추진일정

- 심사: 2020년 11월 중순
- 발표·시상: 2020년 12월 초(개별행보 및 홈페이지 jeju-smalllibrary.or.kr 발표)

선정도서 목록

- 초등부: 끝까지 사라졌어요(고정욱/맹영현) · 잘못 품은 반정(이은재/주머김경사) · 안양이 씨 가족 책 요리집(김유/문학동네) · 숲을 사랑한 소년(나탈리 민/한울림어린이) · 세종대왕이 뿔났다(김정숙/토토북) · 반박편작 작은 등대 도대불(김정배/한그루) · 우리 아이를 소개합니다(제주아이 특별한 아이/봄의 정현) · 나는 나의 주인(채인산/토토북)
- 청소년부: 푸른 늑대의 파수꾼(김은진/창비) · 나는 농담으로 과학을 말한다(오우/책이북) · 우리의 여름을 기억해 줘(이인화/우리학교) · 이름을 출신 소년(이꽃님/주머김경사) · 지구 아이(최현주/비룡소) · 말 해도 귀찮아(이남석/사계절출판사) · 제리새우·비밀글합니(대황영미/문학동네) · 카피우유와 소보로빵(카롤린 필립스/푸른소나무)
- 성인부: 검은 꽃(김영하/문학동네) · 아버지 통 곳바(모리타 류지/서각의힘) · 지금 이대로 좋다(법륜/정토출판) · 침묵의 불(레이첼 카슨/에코리브르) · 페스트(알베르 까뮈) ·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박미라/휴) · 나는 올 때마다 엄마 얼굴이 떠난다(이슬아/문학동네) ·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유한준/열린문학사)

*주관: (사)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협회 · 후원: (사)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사)제주